

양계 산업과 가격안정

조 헌 조

(상주농전 축산과 교수)

우리나라의 양계업은 5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근 30여년 동안에 수많은 파란폭질의 시련속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과 같이 융성한 모습을 보여 부업에서 전업 및 기업화되기까지 실로 놀라운 양적 질적 향상을 거듭해 왔다.

국민소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축산물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반면 우리 주변에는 수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일부는 해결되기도 하고 또 미해결인 채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나 다같이 반성해야 할 문제들이다.

현실적으로 양계업은 그런데로 생산능률면에서 크게 발전되었다고 하겠으나 유통 능률면은 뜻대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유통개선이란 유통 그 자체내 문제해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대 마케팅 개념에 입각하여 그와 관련된 생산과 소비문제까지 함께 다룰때 비로소 달성된다. 생산능률 제고는 생산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나 유통 능률 제고는 업계전체의 일관된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축산업은 또한 생물을 다루는 업이므로 결과가 명확하다는 것이 특성이나 결과는 명확한데 비해 그 원인을 규명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양계산물도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비교적 경직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요 공급 어느 쪽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수요증감에 대하여 즉각적인 공급증감이 안되므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유동이 불가피한 것이다.

양계산물의 가격불안정은 생산자의 소득과 소비자의 지출에 모두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양계농가의 소득 증가를 위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와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 방법은 각양각색이나 모두가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려는 생산자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인 대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양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보면 생산자 자조대책, 정부대책, 정부생산자 공동 대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양계산물의 가격불안정은 생산자의 소득불만을 가져오고 나아가 양계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든지 양계산물의 가격안정 또는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적절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자는 그 산업발전의 주역이다. 따라서 가격안정대책 연구에 있어서도 생산자 주도로 그 방법이 모색되고 또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우선 안정과 성장이 조화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다음 몇가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격안정으로 적정가격 형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양계산물불안은 양계농가의 소득향상과 양계산업 전체의 안정을 저해하는 고질적 요인으로 내려오고 있다.

계란가격은 일별, 월별, 계절별 등락이라고 할수 있으나 브로일러 가격은 수개월동안 진폭이 100%를 넘나들만큼 극심하여 양계업은 하나의 산업이라기보다는 투기업이라 해야 마땅할 정도이다. 이렇게 가격이 자주 오르내리고 또 그 번이가 크게되면 결국 양계농가의 손실만 오게된다.

둘째, 양계농가 스스로가 주도적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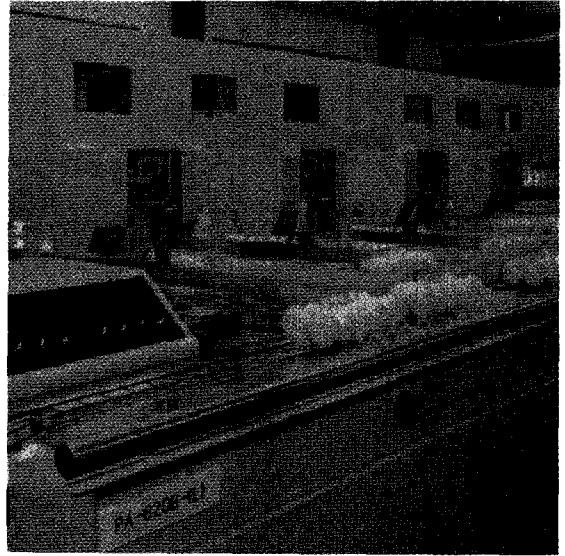
우리들 스스로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전전한 양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 하여야할 것이다.

양계산물의 가격안정은 소수인의 이익보다는 양계농가 전체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는 생산을 다하여야 한다.

품종의 능력, 사료의 질, 사양관리상의 문제 등과 같은 요인들이 허다하기에 양계농가는 과거 무수한 기만을 당하여 왔다. 이제는 최소한도 인위적인 요인만이라도 기업의 양심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저해요인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양계가 자신이 이익을 옹호하여야 하며, 혼자 힘으로 능력 재력 및 시간의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므로 상호협동하는 일만이 우리 양계가 사는 길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양계안정 기금설치가 요망된다고 본다.

셋째, 수요공급에 대한 조절문제이어야 한다.

양계산물의 가격은 개별 생산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총수요와 총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시장별 수요에 따라 적합한 양 만큼만 공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양계산물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조절하고 시장출하를 조정해야 된다. 생산계획에 따라 수요에 알맞는 생산을 기하여 생산이 과잉될 때는 다시 시장출하과정에서 조절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공급 조절 기능이 없이는 가격은 언제나 등락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생산자의 이익은 불안하게 된다.

양계산물 안정은 수급균형 여하에 달려 있으며 양계산물 공급은 비교적 탄력적인데 반하여 수요는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인 관계로 인위적 물량수급의 조절이 없이는 순수경쟁 조건하의 양계산물 가격은 언제나 불안하게 마련이다.

넷째, 계열화 추진을 촉구해야 한다.

축산업의 한 부분인 양계분야도 오늘날에 와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축산업중 어느 한 분야에만 편중된 발전은 기형적인 발전에 불과하므로 항상 상호연결된 종합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종계를 취급하는 육종분야를 위시하여 사양기술, 영양, 생리 및 사료 시설, 토양, 환경, 질병, 가공분야, 경영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문과 기술이 연관된 산업이다. 이들 둘 이상의 기능이 부분내 또는 부분간에 통합경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개별부문 경영의 위험 분산과 산업전체의 균형적 장기발전을 기하려는 기업합리화 방법이다. 즉 부화에서 유통에 이르는 각 부분이 제각기 자기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고 있는 현 산업구조를 각 부분의 이익을 상호 보완하는 계열화 구조로 바꾸어 산업 전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절기관설립과 활동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양계산업도 업계와 정부가 공동노력으로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 통례이다. 정부가 양계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양계산물유통 일부를 담당, 직접 매상하여 가격안정 대책을 위해서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가격지지 정책이 필요한데 시장가격이 지지선 이하로 하락될 때에는 독자 또는 정부매상에 의해 수요를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곧이어 정부가 보장하는 하한가격을 설정,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 협회 등은 거래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직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조합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단체

이므로 비조합원 또는 비협조적인 조합원의 보유물량때문에 더욱 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양계산업이 더욱 기업화됨에 따라 생산 조절과 공급조절을 담당하는 기구가 절대 필요해진다. 전국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 아니고는 양계산물 가격안정기능을 다하기가 어렵다. 또 의무적인 참여방식이 아니고는 생산조절, 공급조절을 기할 수가 없다.

양계산업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가격안정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며, 양계농가가 이 점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역시 생산뿐이고 보니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장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생산자인 것이다. 양계산업의 주인인 생산자는 산업발전에 있어서도 주체구실을 해야한다. 주인이 주인답지 않게 제 본분을 다하지 않는 양계산업은 더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업계와 정부가 뜻을 모아 가장 적절한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양계산물의 가격안정과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양계산업을 이룩하는 길이다.



막걸리가 성인병예방

막걸리가 성인병의 원인물질인 콜레스테롤치를 낮춰주고 혈당감소를 막아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高麗大의 한국영양 문제연구소 朱軫淳소장(高麗大의대생화학과)과 劉太鍾교수(高麗大 농대식품공학과)팀이 실험 쥐 60마리를 대상으로 시판막걸리(일콜농도 8%)를 매일 1회씩 일정량을 투여해 1, 2, 4주 후의 콜레스테롤치와 혈당치의 변화를 관찰한 실험에서 밝혀졌다.

혈당치의 경우 막걸리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1백㎖당 초기 86㎍에서 4주후에는 96㎍으로 11.6%가 높아졌으나 막걸리를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86㎍에서 1백14㎍으로 32.6%나 높아졌다는데는 것.

일반적으로 수술을 마실 경우 일시적인 저혈당증을 초래해 생리기능에 무리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劉교수는 「막걸리에 함유된 풍부한 단백질, 당질, 비타민 B₂, 콜린 등 여러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보상작용을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콜레스테롤치의 경우 대조군에서는 4주후의 혈중 콜레스테롤치가 1백㎖당 41㎍이었으나 막걸리 투여군에서는 25㎍으로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